

채권시장 美 1994년 악몽 재현될까

금리인상이 되레 불확실성 해소... “충격 크지 않을 것”

글로벌 유동성에 영향 크지 않을 것
긴축정책, 94년보다 2004년과 비슷

“현재의 금리 환경은 1994년과 닮았다. 저금리에 익숙해진 투자자들은 금리 상승(채권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국내 채권시장 한 CEO)

1994년 ‘채권시장 대학살’의 악몽이 재현될까.

13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미국채 10년 금리는 2.8%대에 올랐다. 지난해 고점인 2.6%를 단숨에 갈아치우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잡음(noise)도 커졌다. 12일(현지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6.45포인트(1.39%) 오른 2656.00에 마감했다. 하지만 1월 말 고점 대비 10%가까운 조정을 받았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도 59.29달러를 기록하면서 60달러 아래에 머물고 있다.

덕분에 ‘1994년 채권시장 대학살(Bond Market Massacre)’의 아픈 추억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연준발 악몽이 재연될 것인가.

◆94년 악몽은 어떻게 탄생했나

미국 중앙은행(Fed)은 1994년 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년 동안 기준금리를 3% 포인트나 급격히 올린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때문이다. 90년대 초반 S&L(저축대부조합) 파산으로 신용시장이 위



/오른애즈

축되고 경기침체가 온 이후 94년은 경기 바닥을 다지고 확장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 전망이 많았다.

실제로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WEO)은 1994년부터 미국은 3%의 성장을 정상 국면에 진입 1995년부터 4%에 가까운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과도한 레버리지(부동산)를 경계하며 미 연준에 선제적 통화정책 대응을 주문한다. 문제는 금리인상 속도였다. 당시 금리인상은 3.0%에서 6.0%로 300bp(1bp=0.01%포인트)였다. 94년 2월 첫 인상을 시작해서 1995년 2월까지 1년 동안 3번의 50bp와 1번의 75bp 인상으로 충격은 메가톤 급이었다.

이에 1993년 말 6%를 밑돌던 미국 국채 30년물의 금리는 1994년 말 8% 위로 치솟았다. 채권 가격이 폭락하자 1994년

10월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은 ‘채권시장 대학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투자자들은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1990년 시작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썼던 기준금리 3%(1992년 9월부터 1994년 2월까지)의 달콤함에 젖어 있던 터라 충격이 더 컸다.

S&P500은 94년 2월 482포인트를 기록한 후 4월 초 바닥인 439포인트까지 9% 조정을 받았다.

골드만삭스도 당시 큰 손실을 봤다. 당시까지 파트너십으로 운영되던 골드만삭스는 손실액이 늘어나자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 외부 투자자를 끌어 들여야 했고 일부 파트너들은 회사를 떠나야 했다.

유동성을 등에 업고 파티(89년 이후)를 즐기던 멕시코·아르헨티나 증시는 출구전략 이후 1년 만에 고점 대비 50% 이상 폭락했다. 멕시코의 페소화 외환위기는 ‘데

킬라 효과’로 남미 전역으로 확산됐다. 데킬라 효과는 돌고 돌아 2년 뒤 한국 등 아시아 국가의 외환위기로 연결됐다.

◆트럼프 재정정책에 더 주목해야

시장에서는 2004년과 더 닮았다는 평가다. 앨런 그린스펀 당시 Fed 의장은 2004년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성명에서 “금리를 상당 기간 낮게 유지할 계획”이란 문구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사전 신호를 내보냈다. Fed는 이후 2년간 17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4.25% 포인트 인상했다.

한국 등 전 세계의 주가는 금리 인상 전에는 위축됐지만 금리 인상 이후에는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을 연출했다. 미국·중국·유럽 등의 경제 체력이 튼튼했던 것도 금리 인상 걱정을 흡수했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주가(하락) 환율(급등)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다고 말한다. 올해 미국의 긴축정책이 94년보다는 2004년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 증시와 아시아 증시가 동반 폭락한 지난 5일 공식 취임한 제롬 파월(65)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제16대 의장은 취임사에서 금융정책의 투명성과 탄력성을 강조했다.

그는 Fed에서 취임 선서를 하며 “나는 임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왜 하는지 설명하겠다는 약속을 강조하고 싶다”며 “우리 금융 시스템은 10년여 전 금융 위기가 시작되기 이전보다 훨씬 강하고 더욱 탄력 있다”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경기 회복세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점진적으로 금리(시장예상 최대 4차

레)를 인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메리츠증권증권 윤여삼 연구원은 “현재 국면에서 연준은 여전히 중요한 기관이지만 당시와 같은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연준의 선택권은 올해 3번이나 4번이나 금리인상 강도 정도를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글로벌 유동성에 큰 충격을 주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트럼프 재정정책에 대한 걱정은 많다. 재정정책이 만든 경기개선과 채권공급 물량 부담이 현재 금리상승을 지지하고 있는 원동력이라든가. 2월 들어 내년까지 증액된 예산은 미국 채권공급 부담을 자극하고 있는데다 성장률은 추가 상향 조정 계기를 만들고 있다.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에 속도를 내지 않더라도 부담스런 상황인 셈이다.

과도한 부채도 경계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글로벌 금융 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비금융 부채는 지난 2016년 135조 달러(15경 3225조 원)로, 전체 국내총생산(GDP) 대비 235%에 달했다. 이는 금융위기 직전인 2006년의 210%를 웃돈다.

IMF는 “낮은 차입 비용이 글로벌 경제에 대한 낙관론을 낳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점차 높아지고 있는 부채비율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적잖은 전문가들이 주식·채권 투자자에게 당분간 ‘방망이를 짧게 쥐라’(보수적 투자 태도를 가져라)고 권한다. /김민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친환경에너지 육성 ‘국장급 전담조직’ 신설

산업부 소속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재생에너지 3020계획 본격 추진
관련 제도개선·중장기 R&D 지원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 정비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내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 가능한 친환경에너지의 발굴과 육성을 전담하는 국장급 조직이 생긴 것.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2016년 7% 수준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에너지산업 강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13일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신재생에너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정책단 신설 등을 포함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의결에 따라 신설되는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은 기존 에너지산업정책단을 개편해 설치하고 하부조직으로 총 4개과(정원 41명)를 뒤 신재생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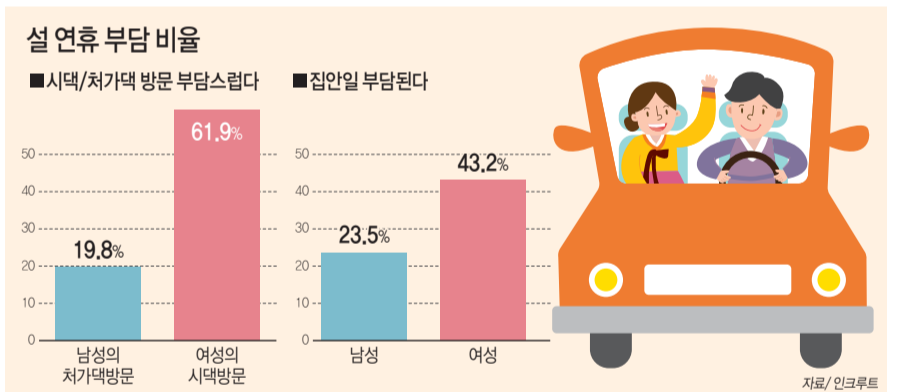
너지 분야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등 기존 기구와 인력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4개과 중 신재생에너지정책과와 신재생에너지보급과는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정책과 보급·확산 업무를 담당하고, 에너지산업과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ESS 등 에너지 분야 신산업 육성을 맡는다. 또 에너지수요관리과는 집단에너지 및 에너지효율제도 운영·관리를 관장하게 된다.

향후 신설 조직을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 집중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 및 제도 개선과 중장기 R&D 지원, 실증사업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과 “국민체감형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직의 효율화를 모색했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전업주부 4명 중 1명 “설 연휴 없었으면” 명절 시택 방문 스트레스, 친정보다 3배

인크루트-두잇서베이 명절 설문 응답자 절반 “연휴 기대되지 않아” 스트레스, 경제적부담·잔소리 순

설 연휴를 앞두고 시택 방문 스트레스가 처가를 방문할 때보다 3배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명절 스트레스가 전업주부에겐 쏟아지는 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시장 조사기관 두잇서베이와 공동으로 성인남녀 3112명을 대상으로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과반수는 ‘설 연휴가 기대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0.6%가 ‘기대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기대된다’는 응답은 15.6%에 그쳤다. 설 연휴를 기대하지 않는 응답자가 많은 계층은 취업생(67.2%)이 1위였고, 이어 전업주부(64.2%), 블루칼라 직장인(52.1%) 순으로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설 연휴 계획과도 관련이 있었다. 설 연휴 계획을 문자 ‘가족·친척 방문, 귀향’이 평균 38.7%의 응답률로 1위에 오른 데 비해, 전업주부의 가족

방문 계획은 무려 61.3%였다. 한편, 전체 설 계획 중 4위에 오른 ‘취미생활을 할 예정’(6.3%)에 대해 전업주부의 응답률은 0.9%에 그쳤다.

특히 전업주부들은 남편 쪽 부모인 시택 방문시 느끼는 부담감이 61.9%로 친정 방문시 부담감 19.8% 대비 3배 이상 높아 전업주부의 설 연휴 스트레스가 상당함을 예상케 했다.

전업주부의 스트레스를 높이는 설 연휴 부담 사유 1위는 경제적 부담(35.7%)으로 나타났다. 이어 집안일 스트레스(31.7%), 가족간 갈등(잔소리 포함)(15.3%)이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 연휴 부담 사유는 경제적 부담(30.1%), 가족간 갈등(20.9%), 집안일 스트레스(18.8%) 순으로, 전업주부의 집안일 스트레스가 평균(18.8%)보다 12.9%p 높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집안일 스트레스에 대해 남녀 교차 분석한 결과, 부담된다고 답한 비율이 여자는 43.2%로 남자(23.5%)의 2배 가까이 됐다. 이때문에 전업주부의 25%는 ‘설 연휴가 없는 게 낫다’고 답했다.

/한용수 기자 hys@

시내면세점·온라인 강화... 해외시장 총력

>> 1면 ‘롯데면세점 철수’서 계속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 매장에 근무하고 있는 100여 명의 직역사원들을 본인 희망 근무지를 고려해 제2터미널과 서울 시내점 등으로 모두 전환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롯데면세점은 3월 중 직원 간담회를 실시, 5월 중에는 인력 배치계획을 최종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판촉사원들은 향후 차기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자질 없는 인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 철수를 통해 개선된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시내면세점 경쟁력을 강화하고 온라인면세점 마케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해외사업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난해 5월 오픈한 다낭공항점이 영업 첫 해부터 흑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중에는 베트남 2호점인 나트랑공항점이 오픈한다.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 전경. /김유진 기자

이 외에도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에 대대적 투자를 진행하고 시내면세점을 추가 오픈해 베트남 면세점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ujinh326@